
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
산업통상부 장관 모두발언(3.12)

- 중동 상황의 여파로 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,
경제주체들의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 - 어제 경유값 상승 전국 1위가 알뜰주유소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.
 -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시기에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.
- 정부는 석유가격을 안정시키고,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왜곡에 대응하며 정부, 기업, 국민들이 석유가격 인상 부담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합니다.
 - 정유사가 주유소,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실제 가격에 대해,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변동 범위에서 가격 상승을 허용하여 글로벌 가격 추이를 벗어난 불합리한 변동을 예방하겠습니다.
 - 휘발유, 경유, 등유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, 국내 공급물량이 해외로 전용되지 않도록 제한하겠습니다.
 -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, 엄격한 심사와 객관적인 검증 거쳐 손실을 보전하겠습니다.
-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높일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.

- 시민단체와 함께, 가격과 물량 흐름을 모니터링하고,
 - 가격 상승폭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주유소에는 공표, 조사, 법적대응으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엄정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.
-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도 신속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이번 최고가격제를 통하여 우리 경제주체들이 경제공동체 로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기를 기대합니다.
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공정위원장 모두발언(3.12)

- 지난 중동 상황이 발생한 이후,
정부는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를 비롯한
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며
엄중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.
- 특히, 석유류는 정유사로부터 주유소, 소비자로 이어지는
모든 유통단계를 철저히 점검 중에 있습니다.
- 우선, 정유사들의
급격한 공급 단가 인상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,
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
4대 정유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.
- 또한, 각 지역의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
범부처 합동 감시반을 통한 특별 감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
공정위도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
'주유소 가격 대응반'을 구성하고
전국적 감시망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.
-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동조화 및 담합 의심이 있는
부산·경북·제주 지역의 주유소에 대한 현장조사도
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.
- 출고조절·담합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
민생을 해치는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,
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것입니다.

- 아울러,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이
민생물가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
국민 밀접 품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.

- 어제 공정위는
9개 돼지고기 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,
6개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.

-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인 돼지고기에 대해
업계 주요 사업자가 모두 가담하여,
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입니다.

- 지난 3월 5일에는 4개 전분당 제조업체의
6조 2천억 원 규모의 담합 조사를 마무리하고
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.

- 7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전분당 시장의 담합 관행을 뿌리 뽑아
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시장 병폐를 바로 잡겠습니다.

- 식품 원재료 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았던
담합 관행이 확인되어 그 충격이 적지 않습니다.
민생을 좀먹는 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시
언제든 그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
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.

- 담합 사건 처리에 대한 대국민 보고가 이어지면서
설탕·밀가루·전분당 공급 업체의
자율적 가격 인하가 이어졌습니다.

- 주요 베이커리의 자율적 가격 인하도 이어졌고,
오늘 라면, 과자 가격 역시 인하되고 있습니다.
- 이러한 가격 인하가 국민 먹거리 전반으로 이어지도록
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도

중동 상황으로부터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
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
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모두발언(3.12.)

- 정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
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왔으며,
그 결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
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
- 공정위와 검찰의 제당·제분업계 가격 담합 조사결과 발표 이후,
관련 업계는 설탕·밀가루·전분당 등 주요 식품 원재료의
가격을 인하하였고,
- 이를 원재료로 활용하는 제빵업계에서도
일부 빵과 케이크 가격을 인하하였습니다.
- 정부는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
물가안정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
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.
- 식용유, 라면 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
원가 변동요인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 가능성을 협의한 결과,
국민 물가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데
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.
- 이에 식용유, 라면 업계는 오는 4월 출고분부터
주요 제품의 출고가격을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.

○ 앞으로 밀가루, 설탕, 전분당 등을 주요 원료로 쓰는
다른 가공식품에 대해서도
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
원가 인하요인이 소비자가격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
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

□ 또한 정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
가격 인상 또는 인하 과정에서
시장 경쟁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.

□ 중동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
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.

□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안정을
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,
생활물가 안정을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
하겠습니다.
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
문체부 차관 모두발언(3.12)

□ 정부는 업계, 유관기관 등 민간과 협력하여
공연·스포츠 분야의 압포 근절을 위해
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
○ 압포는

국민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침해하고,
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훼손하며,
사기범죄 등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
반드시 근절해야 할 문화산업의 고질적인 난치병입니다.

○ 특히 조직적 판매와 함께 갈수록 범행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
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
□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27일,
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압포를 전면 금지하였습니다.

○ 법이 시행되는 8월 28일부터는

누구든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
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판매·알선하거나,
재판매 목적으로 부정 구매할 수 없습니다.

○ 특히, 암표를 판매할 경우

그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인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
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도 지급합니다.

○ 또한, 플랫폼 사업자는 각종 암표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하며,
법정 신고기관도 지정, 운영되어

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○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
소비자, 민간업계,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
개정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

□ 정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

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공연과 경기 등에 대해서는
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관리하고 홍보하겠습니다.

○ 암표 신고센터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점검하고,
의심 사례는 민간과 협력하여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.

○ 지난 3월 5일, 문체부, 경찰청, 공정위와 함께
주요 예매처, 중고거래플랫폼,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
암표방지 민관협의체도 출범하여,
민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나갈 것입니다.

○ 또한, 최근 이목이 집중된 방탄소년단(BTS)의 공연은 양도불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암표 판매 게시글이 확인되어, 그 중 4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.

○ 이에 더해

암표 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 위험성 등에 대해서도 국민께 충분히 안내하여 건전한 입장권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 시행 준비와 현장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공연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경찰청장 직무대행 모두발언(3.12.)

- 경찰청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경찰청은 3월 3일부터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였으며, 유가 관련 불법행위* 및 암표매매를 단속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.
 - * △사재기 △수급안정명령 위반 △석유 판매가 지정 위반 △가짜석유 제조 등 석유 관련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
- 먼저, 유가 관련 불법행위 대응입니다.
- 3월 9일 일선 경찰관서에 ‘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강화’ 지시를 하달하였고, 범죄정보 집중수집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최근, 불법 업체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무자료 석유 판매 범죄조직원들을 검거한 성과가 있었고, 폭리 목적 사재기도 입건전 조사 중입니다.
- 앞으로도, 전국 경찰관서에서는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,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하는 한편,
 - 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 △석유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△가짜석유 제조·유통 등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서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
- 다음은, 암표 관련 대응입니다,

- 대형 공연과 각종 행사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암표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온라인상 매크로 이용 암표 거래는 시·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하고, 오프라인 현장 암표 매매 역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△ 문체부 △ 공정위 △ 주요 예매처 및 플랫폼과 함께 협력하여, 경고 문구 표출과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.
- 앞으로도,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공연·행사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앞으로도 유관부처가 협업하여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이 잘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, 경찰청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.
- 이상으로 경찰청 대책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